

한국정부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처우개선에 나서라!

■ 일시 : 2020.11.17.(화)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레티마이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 경과보고 : 김호세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 ◇ 발언순서
 - 발언1 : 마잉바야르(주한몽골여성총연맹, 이중언어문화강사)
 - 발언2 : 통번역 이주여성 당사자의 편지
 - 발언3 : 류지호(의정부 외국인노동자 지원 활동가)
 - 발언4 : 우다야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5 : 이편(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발언6 : 장혜영(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 ◇ 진정서 주요내용(최정규-원곡법률사무소)
 - ◇ 기자회견문 낭독
 -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공동주최 및 연명

결혼이민자 다색빛 공동체,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다올빛 이주여성연합회, 다섬연합회, 생각나무BB센터, 원곡법률사무소,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모임, (사)모두를 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친구, 이주노동자의 평등한 권리실현을 위한 연대(약칭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주한몽골여성회, 지구인연정류장,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문의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02-3672-8988/ wmigrant@wmigrant.org

한국정부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처우개선에 나서라!

우리사회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해, 다누리콜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많은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이 기관들에서 상담, 통번역, 이중언어 강습 등 자신들의 전문성을 살려 한국사회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작 본인들은 처우와 노동환경에서 차별받고 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 선주민 중심의 센터직원과 이주여성 중심의 특성화사업 인력들의 임금차별구조가 지적되었다.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선주민 중심의 센터직원들과는 달리 경력산정도 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평균임금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다.

이런 문제는 비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문제만은 아니다. 공공의 다양한 이주민 지원기관의 노동자들의 노동은 최저임금이라는 최저선에 가까운 임금기준에 갇혀있다.

이런 차별의 구조는 임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이주민 관련 기관임에도 이주민 당사자의 승진기회가 없는 구조는 한국사회의 유리천장이 얼마나 굳건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사람들은 뉴스에서 보는 이주노동자들의 말도 안 되는 처우와 노동환경을 보면서 악덕업주들을 비난하곤 한다. 이미 한국사회에서 악덕업주의 이주민 노동력 착취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정부'라는 악덕업주를 고발하고자 한다. 한국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해당 기관의 실질적인 임금과 처우를 결정하는 '진짜 사장'의 위치에 있다. 최저임금을 지키면 문제될 것이 없기에 최저임금수준으로 이들의 노동의 대가를 정해놓고 이들의 전문성을 착취하고 있다.

최저임금수준에 가까운 처우만으로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의 대가를 통치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는 '노동존중'이라는 현란한 말잔치로 포장된 문재인 정부의 민낯을 드러낸다. 정부는 K방역을 세계에 자랑하지만 진짜 세계에 알려야 하는 것은 이주여성들의 노동을 최저임금과 기회의 차단이라는 유리천장에 가둬둔 정부의 후진적인 노동 인식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수준의 열악한 임금,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 승진기회가 없는 업계의 구조 등으로 이주여성 노동자들을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방치하고 있다.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논하는 일은 한국사회에서 이들이 어떤 존재로 인정받는가와 관련이 있다. 정부는 이주여성들을 차별할 생각이 없다면, 이들을 한국 땅에서 땀흘리는 한 명의 노동자로서 동등하게 인정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사항을 수용하라.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 그리고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을 실현해라.

여기에 모인 우리 단체들과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땅에 있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오랜 세월동안 겪은 부당한 경험들이, 최저임금에 갇힌 이들의 노동이 차별인지 아닌지 국가기관에 묻고자 한다.

전태일 50주기를 맞는 정부는 역대급 노동개혁과 더불어 이주민들에 대한 후진적인 노동인식으로 그의 50주기를 더럽히고 있다. 선주민과 이주민 노동자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들을 옥죄 궁리만 하는 정부에게 과연 우리 노동자들은 어떠한 존재인지 묻고 싶다.

한국정부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후진적인 노동인식에 대해서 반성하고 우리의 호소에 즉시 응답하라.

[우리의 요구]

- 이주여성의 경력을 반영하는 호봉제를 즉각 도입하라
-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 근절하고 비정규직 이주여성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이주민 관련 기관에서 당사자들이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신속히 마련하라
- 이주여성 차별 근절을 위한 노정 TF를 구성하라
- 이주여성 차별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라!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는 이주여성들 곁에서 굳세게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1월 17일

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

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이주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 투쟁 경과보고

■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이주여성 노동자 처우문제에 대한 제기를 바탕으로 민주노총,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희망센터, 원곡법률사무소 등 4개 단체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 2020년 10월 16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민주노총,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만나 기획회의를 통해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무승진, 차별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 10월 26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의 4개 단체가 중심이 되어 ‘공공기관 상담·통번역 근무 이주여성 처우개선 대책모임’이 제안되었습니다.

○ 11월 2일 제안을 토대로 민주노총,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친구, 원곡법률사무소,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등 7개 단체가 대책위 구성 1차 회의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과 이주여성 노동실태조사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 11월 4일부터 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관련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고, 이번 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 11월 7일에는 ‘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관련 이주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이주여성 노동자 당사자들이 모여 직장 내에서 겪은 차별과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이후 오늘의 기자회견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주노동자평등연대에 속한 다양한 단체들이 공동주최 및 연명으로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전문직임에도 최저임금을 웃도는 열악한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전문자격을 갖추고 채용되고 있으며,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함께 근무하는 선주민 직원들과 비교하여 호봉인정이 안되는 열악한 보수체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 또한 공공기관임에도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으로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고용의 불안정 속에 방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둘째, 이주민단체임에도 이주민은 승진체계가 없는 한국사회 유리천장의 현실 고발하고자 합니다.

-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상담, 통번역인 사업인력으로만 일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이주민 지원단체에서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승진할 수 없는 체계입니다.

- 이런 현실은 한국사회의 전형적인 유리천장 구조로서 선주민 중심의 계급 사회를 타파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 셋째, 이 처우개선 요구가 이주민, 이주민 노동에 대한 차별 근절을 위한 기본영역이기 때문입니다.

- 이주여성 차별이 만연한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차별문제는 이들의 노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정부가 저지르는 차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면서 이주민과 이주민들의 노동에 대한 존중을 한국정부와 한국사회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 공공기관 영역에서의 차별을 시정하는 과정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이주민, 이주노동에 대한 차별 근절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후의 기자회견 발언들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번역 이주여성 노동자의 편지

안녕하세요!

우선 본인이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15년 차 결혼이민자였고, xxxxx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사로 근무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를 참석하고 싶었으나 내부 교육 때문에 반차를 내지 못해 이 편지를 대신 보냅니다. 제가 이렇게라도 글을 쓴 이유가 앞으로 결혼이주여성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대우와 인권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세계민주국가 중에 하나 대표적 나라라고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을 존중함이 아닙니까? 즉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평등과 자유 권리, 하지만 이 우수한 민주국가에서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불평등 대우와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생각조차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몇 가지 호소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주여성들이 가정에서 한국인 가족들에게 무시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언어장벽과 한국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 때문에 많은 비난과 차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주여성들이 자랑할 수 있는 직장(통·번역, 콜센터 상담 등)에서 오래 근무했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계발을(관련 분야 전문자격 취득)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속 3년 동안 중앙관리기관에서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한 근무시간을 단축 등 편법으로 열심히 일하는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가지고 장난쳤습니다.

세 번째 저 같은 xxxxx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오래 근무해오던 통·번역사가 업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 그 당시 고용노동법에서 정한 병가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한 이주여성들도 행복한 가족을 추구하고 있는데 다만 특성화 사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가족수당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어떤 센터에서 근무하는 이주여성이 센터의 최고 관리자에게서 모국친정 가족까지 무시를 당했습니다.(설 명절에 모국친정 방문하려고 연차를 신청했을 때 한국에 시집에 오면 한국에서 정착하여 한국의 문화 및 생활습관에 따라야지 왜 자주 모국에 방문하냐고 연차 연속사용하는 것 거절을 당했음)

이어서 우리 이주여성들이 언제쯤이 민주국가에서 진정한 평등과 인권존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상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